통일 칼럼

북한의 기록영화 80년

정 복 규
논설위원

조선중앙TV를 보면 최고지도자의 현지 시찰이나 업적, 주요 행사 등을 모아 한편의 다큐처럼 보여주는 영상이 자주 등장한다. '기록영화'라고 부른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지도자 우상화와 체제 선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 기록영화를 제작하는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았다.

촬영소에서 제작하는 기록영화는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와 해외 방문, 국가 주요 행사 등 북한의 중요 순간들을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의 기록영화가 단순 기록물의 성격을 넘어 체제 선전과 주민 사상 교육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일성은 기록영화의 정치적 가치를 인식하고 해방 직후 기록영화제작소를 설립했다. 1946년 7월 첫 기록영화를 선보이며 체제 정당성 확보에 나선 북한은 6·25전쟁 중에도 기록영화 제작을 멈추지 않았다.

6·25전쟁을 미국과 남한이 일으킨 북침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주민들에게 왜곡된 전쟁 인식을 주입했다.

1960년대, 김일성의 권력 강화와 후계 구도를 위해 해방 이후 김일성과 함께 북한 정치를 주도했던 이른바 갑산파에 대한 숙청이 이뤄지면서 북한 기록영화도 큰 변화를 맞았다.

김일성 수령 제일주의를 앞세운 선전 도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은 바로 김정일이었다.

김정일은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를 600차례 이상 찾을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기록영화를 통해 김일성을 혁명의 기원으로 그려냈다면 김정일 자신은 선군정치를 앞세운 위기 속 수호자의 모습으로 그려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집권 초기부터 기록영화를 권력 세습 정당화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김정일 사망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김 위원장을 우상화하는 첫 기록영화를 공개했다.

주목할 점은 당시 기록영화에 김일성의 생전 장면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김일성의 이미지를 차용해 주민들에게 김정은을 정통 계승자로 인식시키는 데 주력했다는 분석이다.

이후에도 기록영화는 시기마다 김정은에게 필요한 지도자상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때론 화려한 영상미와 연출로 진취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가 하면, 때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담아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정상외교와 해외 무대에서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며 최고지도자의 국제적 위상을 부각하는 데도 활용됐다.

특히 정상회담과 같은 역사적 장면은 최고지도자의 업적을 선전하는 기록영화에 활용되는 만큼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 당시 북한 촬영 기자들은 경쟁하듯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는 데 집중했다.

외부 정보가 차단된 북한인 만큼 기록영화가 일정한 세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물론 장마당 세대로 불리며 외부 정보를 몰래 접해본 젊은 층에게는 기록영화가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 설

카드정보 5700여건 탈취

온라인 쇼핑몰에서 평소처럼 결제했을 뿐인데, 카드 정보가 통째로 빠져나갈 수 있는 피싱 수법이 확인됐다. 실제 결제 화면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페이지를 슬쩍 집어넣은 것이다.

어떤 수법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의가 요망된다.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온라인 쇼핑몰 결제 화면이다. 하지만 해킹 조직이 몰래 심어놓은 가짜 결제 페이지였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입력까지는 일반 결제와 똑같다. 그런데 추가로 카드 비밀번호 전체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한다. 정상 결제라면 입력할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다.

정보를 입력하면 '결제 오류'라는 안내가 한 번 뜨고, 곧이어 진짜 결제 화면이 다시 열린다. 소비자가 같은 정보를 한 번 더 입력하면 결제는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하지만 이미 카드 정보는 빠져나간 상황, 소비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채기조차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방식으로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정보 5,700여 건이 탈취됐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보안원은 탈취된 카드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해 부정 결제를 막고 있고, 카드사들도 해당 고객에게 카드 재발급과 사용 정지 등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 결제를 하다가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전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킹으로 탈취된 카드 정보가 부정 사용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카드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재개발 멈춘 빈집 1000채

울산 최대 규모 재개발구역에서 최근 두 달 새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1천 채 가까운 집들이 방치된 상태인데, 범죄와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곳의 한 대규모 재개발 구역은 골목마다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지만 거의 비어 있다. 담벼락엔 출입 금지 표시가 돼 있고,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도 곳곳에 쌓여 있다.

최근 빈집 두 곳에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최근 이 빈집에서 석면 제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5월에도 또 다른 빈집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현재 이 구역에 방치된 주택만 1천 채에 가깝다. 재개발 사업이 20년이나 표류하면서 동네가 점차 쇠락했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 악화하는 데다 화재에 범죄 위험까지 높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여전하다.

때로는 빈집에 들어가서 뭐 있나 없나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구청도 빈집 여부를 확인해 점검하고 있지만 수시로 모든 빈집을 확인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사유지여서 경찰도 무단 침입 신고가 접수돼야 내부 점검이 가능하다. 갈수록 무더기로 방치된 빈집이 범죄와 안전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국 곳곳의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최근 시신마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방치된 집들만 늘고 있다.

독자제언

보이지 않는 덫, 청소년 마약 막기 위한 사회적 골든타임

최근 뉴스를 장식하는 마약 관련 소식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단연 '청소년 마약'이다.

과거에는 일부 계층이나 유흥가 주변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마약이, 이제는 청소년의 교실과 집안의 방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SNS와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용돈 몇만 원으로 손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기의 마약 투약이 성인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뇌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 시기의 약물 중독은 뇌 세포를 파괴하고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

사실상 한 사람의 미래와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하는 행위다. 더욱이 호기심과 또래집단의 문화에 민감한 청소년의 특성상, 한명의 중독자가 주변 친구들까지 빠른 속도로 오염시키는 '도미노 현상'을 유발하기 쉽다.

우리는 첫째, 처벌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 '치료와 재활'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마약 사범을 단순히 범죄자로 낙인찍고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호기심이나 유혹에 빠진 아이들이 신속하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소년 전담 치료기관과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마약은 나쁜 것이니 하지 마라"는 식의 식상한 훈계는 효과가 없다. 마약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구체적인 파멸과정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실질적인 거절 방법을 훈련하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필수적이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급격한 행동변화나 용돈 지출 내역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셋째, 유통망에 대한 단호하고 철저한 단속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

SNS 플랫폼 기업들 역시 AI 기술 등을 활용해 약물 관련 키워드와 거래 채널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적·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마약이라는 거대하고 정교한 덫에 걸려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철없는 아이들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다.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강력한 연대의 벽을 쌓아야 할 때다. 창소년들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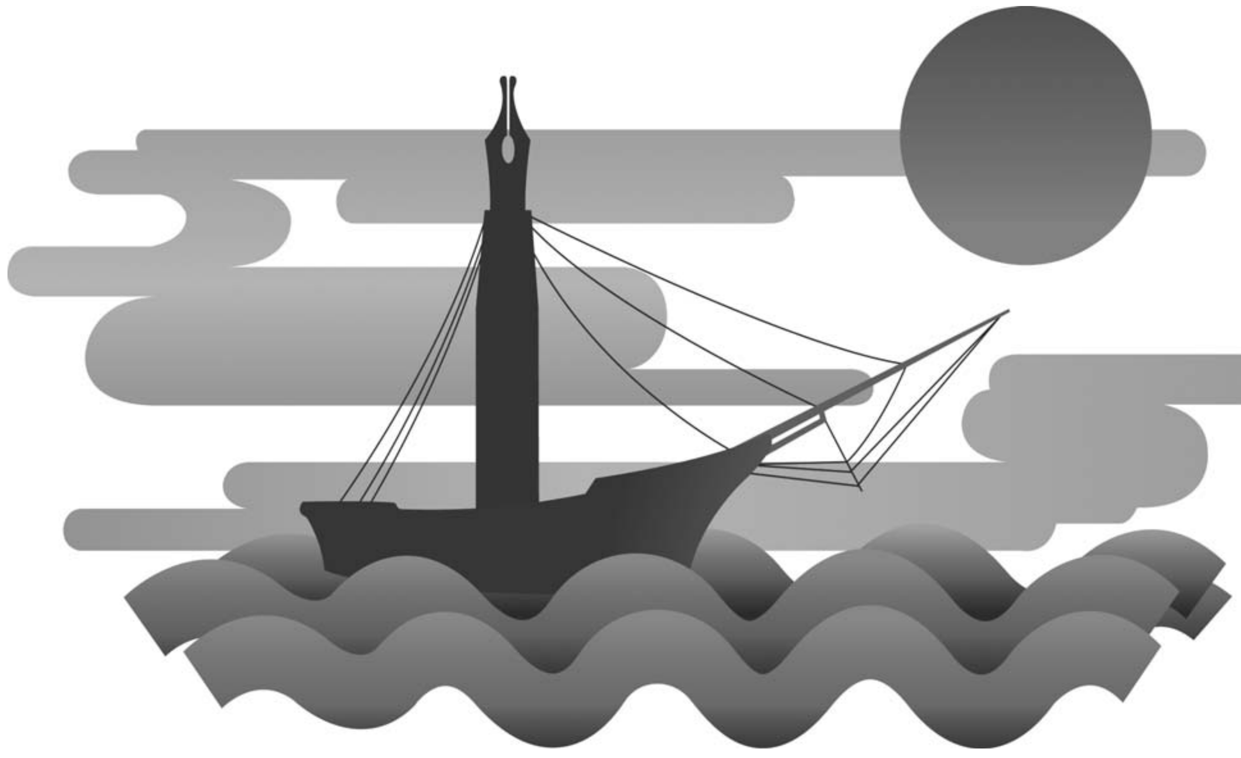
김은화 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